

전 11:7-12:8의 모호성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재고

김순영*

들어가는 말

전도서 해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본문의 구성과 내용의 모호성 (ambiguity)¹⁾이다. 본문의 모호성 때문에 전도서를 '정통적이지 않은 무명 작가가 내적인 응집성 없이 기록한 일종의 비망록'²⁾이라거나 통일성 없는 모순투성이의 낙제작처럼 평가하곤 했다. 그러나 알쏭달쏭 방향을 잡기 어려운 구성과 모호성을 글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³⁾ 저자 자신만의 독자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수용할 수는 없을까?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구약학.

- 1) 어원적으로 모호성은 '두 길로 물고 간다는 의미에서 일상의 대화나 과학적 언어에서는 배제되어야 하지만, 내포적 의미를 증시하는 시적 언어에서는 모호성이 시적 장치로 옹호된다. 유중호 외,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서울: 국학자료원, 2006), 413. 하나의 어휘에 단 하나의 뜻이 아닌 그 이상의 뜻을 지닌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쓸모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수용한다. 그런 점에서 언어자체의 모호성 수렴은 의미생산의 방해요소가 아니다. Moisés Silva, 『하나님 그리고 언어와 성경과의 관계』,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 1994), 160-161을 참조하라.
- 2) Peter C. Craigie, *The Old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Nashville: Abingdon, 1986), 229.
- 3) 이미 오래 전 전도서를 통일성 있는 저작으로 받아들인 고디스(R. Gordis, *Kohleth: The Man and His World* [New York: Schocken Books, 1968])의 강력한 의견개진으로 전도서의 통일성을 수용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고디스는 12:9-14의 에필로그는 다른 손의 의한 가필이라는 전통을 따르지만,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되지 않은 통일성을 옹호한다. 통일성을 옹호하는 최근의

모호성을 전도서 저자 코헬렛(1:1, כהלת)만의 독특한 수사로 수용하면, 책의 독특성을 만드는 문학적 특징이 된다. 모호성을 수렴하는 것은 “저자가 지닌 사상의 문양과 짜임새”(texture and fabric)⁴⁾를 밝히는 수사비평적인 읽기이며, 면밀한 읽기를 통해 구성적 예술성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모호성으로 인한 의미의 다중적인 복잡성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본문의 메시지 전달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첫 눈에 명료하게 비춰졌던 것이 좀 더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인식하게 한다.⁵⁾ 때문에 모호성은 독자의 보다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

사색적 성찰의 기회지만 어휘 자체의 모호성은 해석의 난점이 되곤 했다. 그 대표적 예가 전도서 11:7-12:8에 대한 젊음과 노년의 생리학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 알레고리적 번역과 해석이다. 이 본문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인기를 얻어 왔지만, 본문 자체를 강조하는 관심사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재고할 상황으로 인도했다. 성경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을 우선했던 루터(M. Luther)는 알레고리적인 중세의 해석을 포함해 이전 선배 주석가들의 기고들을 “참 의미”(real meaning)를 숨기는 “불품없는 주석들”이라고 꼬리표를 달아 비판했다.⁶⁾ 칼뱅(J. Calvin)역시 알레고리적 해석의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문자적 의미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의 태도를 비판하며 문맥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우선시했다.⁷⁾ 이 주장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전도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씨아우(C. L. Seow)와 폭스(M. Fox)다. 통일성 논의와 관련된 주된 문제는 김순영, 『열첫말로 읽는 전도서』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1), 15-23을 참조하라.

- 4) James Muilenburg,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 (1969), 1-18. 1968년 12월 18일 켈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열린 성서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연차모임의 의장 연설에서 언어학적인 세부 묘사의 강조를 통해 본문 중심적인 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 5) 김순영, 『열첫말로 읽는 전도서』, 43.
- 6) Katharine J. Dell, “Ecclesiastes as Wisdom: Consulting Early Interpreters,” *V7* 44 (1944), 301; 엄진섭, “루터의 알레고리 비판,” 『신학과신앙 (루터대학교교수논문집)』 14 (2003) 167-208을 참조하라.

11:7-12:8의 다소 치우쳤던 알레고리적 번역과 해석의 완화를 제안한다.

알레고리적 해석은⁸⁾ 초대 유대인 주석가들의 관심사였다. 가장 초기 탈군과 미드라쉬, 그리고 탈무드가 대표적이다. 이후로 고디스(R. Gordis, 1968)와 델리취(F. Delitzsch, 1988)를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다.⁹⁾ 특히 전도서 12:1-8은 가장 논쟁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많은 논의를 거친 본문이다. 더욱이 모호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위 본문에 나타난 일련의 은유들을 노화와 죽어가는 과정의 자각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어왔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고, 가장 인기 있는 젊음과 노년기의 생리적 변화라는 해석이 충분한 공감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죽음과 관련된 문자적, 상징적 읽기로 이어졌다. 실제로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고,¹⁰⁾ 여기에 보다

-
- 7) 양신혜, “칼뱅의 영적해석-문자적 의미와 알레고리적 해석의 긴장 사이에서”, 『장신논단』 38 (2010), 130, 132.
- 8) 문학용어로서의 알레고리는 그리스어 ‘알레고리아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추상적 개념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은유를 확대 발전시킨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보통 ‘풍유로 해석된다. “교훈을 위한 다양한 서사적 기법”의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유종호 외, 『문학비평용어사전』, 406-407). 성경의 알레고리, 또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성경의 문자, 또는 분명한 것 이면(裏面)에 담긴 구절의 실제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믿는 해석 방법을 말한다. 성경의 문학 기법으로서 알레고리에 대한 구별해야 할 개념은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Canon&Culture』 15 (2014), 32-33을 참고하라.
- 9) Craig G. Bartholomew,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346;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Grand Rapids: Eerdmans, 1999), 343-349. 폭스는 구문구조와 조화하는 다른 알레고리적인 읽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본문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 역사에 대한 설명은 지면 한계 때문에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 10)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라. John F. A. Sawyer, “The Ruined House in Ecclesiastes 12: A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Parable,” *JBL* 94 (1975), 519-531; Barry C. Davis, “Ecclesiastes 2:1-8, Death, an Impetus for Life,” *Bibliotheca Sacra July-September* (1991), 298-318; Michael V. Fox, “Aging and Death in Qoheleth 12,” Roy Zuck, ed., *Reflecting with Solomon: Selected Studies on the Book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381-399; H. A. J. Krüger, “Old Age Frailty Versus Cosmic Deterioration?: A Few Remarks on the Interpretation of Qohelet 11:7-12:8” A. Schoors, ed., *Qohelet in the Context*

진전된 논의들이 더해졌다. 폭스(M. Fox, 1994)는 칼뱅처럼 알레고리를 전면부정하지 않지만, 노화과정과 죽음의 알레고리로 읽어왔던 종래의 해석을 정리하면서 모든 죽음이 재앙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끝을 암시하는 종말론적 상징체계가 있음을 강조했다.¹¹⁾ 특히 전도서 12:2-7에 대한 문자적인 묘사, 상징, 심상(imagery)을 살피면서, 이 부분이 세상 끝에 대한 암시와 개별적인 죽음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다.¹²⁾ 이 외에 시아우(C. L. Seow, 1999), 로핑크(N. Rohfink, 2003), 크뤼거(T. Krüger, 2004), 바돌로뮤(C. Bartholomew, 2009)로 이어지면서 노화와 죽음의 과정을 말하는 알레고리보다는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것의 종말을 말하는 시로 읽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일부 수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자 코헬렛의 수사학적인 관계망 안에서 반복되는 창조질서를 노래하는 시작 부분(1:4-11)과 죽음과 종말을 내다보는 책의 마지막 부분(11:7-12:8)의 대칭적인 마주보기 구성의 관계를 주목하며 본문을 읽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노년의 감정적이며 육체적인 노화과정의 묘사(특히 12:2-5)라는 꼬리표를 떼고, 인간의 개별적인 죽음과 창조질서에 나타난 우주적 종말의 이중적인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반복되는 창조질서(1:4-11)의 끝을 알리는(11:7-12:8) 세상 모든 것의 종말론적 죽음에 대한 성찰이 될 것이다.

1. 전도서에서 11:7-12:8의 위치와 수사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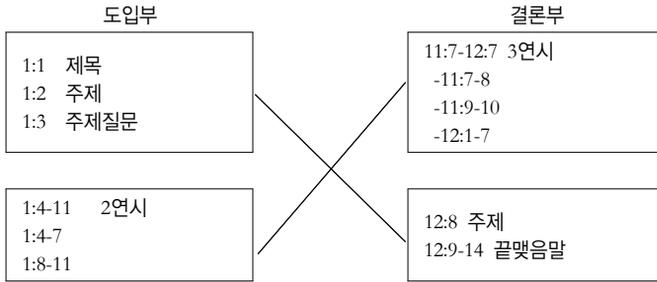
1.1 책의 시작과 끝의 마주보기 구조에서 본문의 위치

of Wisdom (Leuven: Leuven University, 1998), 399-411; C. L. Seow, "Qohelet's Eschatological Poem," *JBL* 118 (1999), 209-234.

11) Michael Fox, "Aging and Death in Qoheleth 12," *JSOT* 42 (1988), 55-77.

12) Fox, *A Time to Tear Down*, 347.

전도서의 모호성은 어휘뿐만 아니라, 구문과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때문에 너무도 다양한 구조들이 제시되면서 통일성의 의구심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전도서는 표제(1:1)와 끝맺음말(12:9-12), 책의 표어 기능을 하는 ‘헤벨(הֶבֶל)’¹³⁾구절(1:2; 12:8), 주제질문(12:3), 그리고 1:4-11과 11:7-12:7의 시는 전도서 전체를 감싸는 내피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책 전체의 거시구조를 형성하면서 대칭적 구성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면서 마치 전주곡과 끝악장 같은 균형미를 만든다.¹⁴⁾ 다음 도표의 수사적 구성은¹⁵⁾ 본문의 위치를 통해 본문의 함축적의미를 가늠하도록 돕는다. <표 1>



<표1>

- 13) 전도서에서 38회 등장하는 ‘헤벨’은 모호성을 대표하는 어휘다. 정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헛됨’으로 친숙한 이 어휘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언어자체의 다의성과 문맥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반영되어 번역되었다. 때문에 덧없음, 수수께끼, 무상함, 부조리 또는 문자적 의미로서 연기, 한숨으로도 번역된다. 전도서의 열셋말이 되는 이 어휘는 오르간의 저음부처럼 책 전체를 관통한다. 다른 맥락에서는 헛된 것으로서 우상(왕상 16:26; 시 31:6; 62:10; 렘 2:5; 8:19; 10:8; 14:22; 은 2:9)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보다 많은 논의를 위해서는 Fox, *A Time to Tear Down*, 27-42를 보라.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A Study of the Language of Qoheleth I, II* (Leuven: Peeters, 1992-2004) ‘헤벨’의 어휘에 대한 방대한 연구는 전도서 어휘의 복잡성과 역사성을 설명해준다.
- 14) 대칭적 구성의 문양을 제시한 학자들이 여럿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한 James Reitman, “The Structure and Unity of Ecclesiastes,” *Bibliotheca Sacra* 154 (1997), 297-319를 참조하라.
- 15) 김순영, 『열셋말로 읽는 전도서』, 46.

위 도표(표 1)에서 보여주는 책의 시작과 끝의 교차구조 구성은 책 전체의 서론과 결론의 상응관계를 보여주며 해석적인 경계를 결정하는 신호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편의 시는 우주와 인류의 관심사를 매우 간결하게 함축하고 있다. 교차적 마주보기 구성은 창조된 세계의 반복되는 질서(1:4-11)와 우주와 인간의 끝을 묘사하는 종말(11:7-12:7)의 그림이다. 이 구성은 양극구조를 좋아하는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7:8)고 말한 것처럼 사물의 시작과 끝을 밝힌다. 그는 1:4-11의 시에서 '해 아래'¹⁶⁾ 사는 인류와 만물의 현재적인 창조질서 유지를 반복이라는 그림으로 펼쳐 보였다. 그가 묘사하는 자연의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질서, 그리고 가고 오는 인간 역사의 반복성에는 계속성과 일시성이 함께 병행하지만(1:4-11), 그 끝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노래한다(11:7-12:8). 결국 책의 시작과 끝에 위치한 두 편의 시는 책의 내부 틀 구조를 형성하면서 창조에서 역사로, 역사에서 죽음이라는 순차적인 질서가 있음을 암암리에 말해준다. 한 마디로 창조질서의 종말은 도래할 것이며,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찰은 창조질서의 종말에 대한 소우주적 표현인 셈이다. 그래서 코헬렛은 해 아래서 태어나고, 땅 위에 존재하고, 당시 땅 속 무덤(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책의 시작과 끝에 배치한 것이다.

독특한 것은, 코헬렛이 지혜자이면서 12장을 예언자들의 언어를 차용하여 개인의 죽음과 우주적 종말을 함께 생각하도록 묘사한 점이다. 물론 예언자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존하는 사회적 변혁과 개혁을 일구어내는 언어는 아니다. 그는 "하늘 아래"살면서 눈과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땅의 일을 살피는 현실감과 신앙적 태도를 간직한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과감하게 펼쳐 보인 지혜 선생이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흙에 기반을 둔 인간(human)의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는 겸손(humility)이다. 그래서 '해 아래' 관찰되고 반복되는 모든 창조

16) 전도서 전체에서 29회(1:3, 9, 14; 2:11, 17, 18, 20, 22, 3:16; 4:1, 3, 7, 15; 5:12, 17[13, 18]; 6:1, 12; 8:9, 15[x2], 17; 9:3, 6, 9[x2], 11, 13; 10:5) 사용되며, 이것과 동의어처럼 병행적으로 사용되는 '하늘 아래'는 3회(1:13; 2:3; 3:1) 발견된다.

세계질서의 우주적인 종말과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류의 조건을 노래한 것이다. 이 수사적 구조를 고려하여 전도서 11:7-12:8의 의미를 탐색한다면, 대체로 주석가들이 제안했던 젊음과 노년의 생리학적 비교로 읽게 만들었던 몇몇 어휘들에 대한 알레고리적 번역과 해석은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본문의 구성적 전략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2. 본문의 구성

본문은 책의 외부 틀 구조의 안쪽 자리를 차지하며, 포괄적인 주제는 삶과 죽음이다. 삶과 죽음은 전도서 곳곳에서 가장 근원적이면서 중요한 주제다. 코헬렛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햇빛을 보는 즐거움에서 비롯된 생명의 활기(11:7)를 노래한다. 그는 끊임없이 삶의 기쁨을 추천하지만, 값싼 즐거움이 아닌 것은 12:1이후에 노래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의 묘사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 11:7-12:8은 1:4-11의 반복되는 순환적 질서의 노래와 대비된다. 이 시의 회화적 언어와 은유들은 창조자에 대한 기억과 삶의 비애를 함께 그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작과 질서, 죽음과 종말의 담론들을 새겨 넣었다. 언제나 생명의 활력을 기대하지만, 시작은 결국 끝을 품어야 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며 질서라는 것을 노래한다.

무엇보다 코헬렛은 삶의 난해성들과 신비들을 박멸하지 않으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로 12:1-7을 에워싼다. 이 권고는 사람과 우주의 죽음에 대한 코헬렛의 반추 사이에 신중하게 끼워져 있다. 또한 어휘와 구문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명령형과 때를 표현하는 시간절의 구성안에서 표현했다. 3연시로 구성된 11:7-12:8의 연 구분 신호는 반복되는 열셋말 동사의 문법적인 변화에 기초하여 구분한 것이다(간접명령→직접명령으로의 전환). 이것은 수사적 단위의 변화신호이면서 의미변화의 신호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셋째 연(12:1-7)은 부사구 “...전에”(לפני)의 반복 사용의 돋보이는 구성력을 갖추었다.<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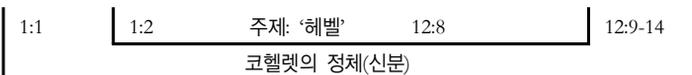
아래의 구성에서 각 시행과 구문을 지배하는 동사의 반복(즐거워하라, 기억하라)과 전치사구의 반복(...전에)은 문체의 변화와 '헤벨'구문(12:8)의 최종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보통 11:7-12:8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구분하는 폭넓은 합의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다양하다.¹⁷⁾ 12:8은 11:7-12:7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동시에 1:2의 '헤벨' 구문과 책 전체를 감싸는 인클루지오 구성에서 뒷문으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¹⁸⁾ <표 2>

'전에'	1. 즐거움의 초대와 어둠의 날(11:7-8)	[간접 명령]
	2. 젊은 날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심판(11:9-10)	[직접 명령]
	3.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12:1a-7)	[직접 명령]
전에(1b) 불행한 날이 오기 전에	전에(2a) 어두워지기 전에(해, 달, 별) :갑작스러운 재난과 죽음	전에(6a) 땅으로, 하나님께서로 돌아가기 전에

<표 2>

11:7-8절을 이전 단위와 구별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 17)단위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11:7-12:8을 하나의 단위로 읽는 Fox, *Qoheleth and His Contradictions*, 156; Murphy, *Ecclesiastes*, 111-112; Seow, *Ecclesiastes*, 47, 346-347; Ogden, *Qoheleth*, xi7-xii8; Idem, "Qoheleth's Summons to Enjoyment and Reflection," *VT* 34 (1984), 27-38. 둘째, 11:1-12:8을 하나의 단위로 읽기도 하는데, G. A. Barton, *A Critical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cclesiastes*, ICC (Edinburgh: 1993), 179; D.C. Fredericks, "Life's Storms and Structural Unity in Qoheleth 11:1-12:8," *JSOT* 52 (1991), 95-114. 셋째, 11:7-12:7 Crenshaw, *Ecclesiastes*, 181; J. S. Reitman, "The Structure and Unity of Ecclesiastes," *BS* 154 (1997), 297-319. 넷째, 11:9-12:8을 하나의 단위로 읽는 Lofhink, *Qoheleth*, 135-142. 다섯째, 11:9-12:7 Perdue, *Wisdom and Creation*, 232. 마지막으로, 12:1-8만을 하나의 단위로 읽는 M. V. Fox, "Aging and Death in Qoheleth 12," *JSOT* 42 (1988), 55-77; B. C. Davis, "Ecclesiastes 12:1-8-Death and Impetus Life," *BS* 148 (1991), 299-318.
- 18)김순영, 『열쇳말로 읽는 전도서』, 48. 외부 틀을 형성하는 표제와 끝 맺음말, 헤벨 구문과의 관계는 이중의 틀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전의 시행(11:1-6)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며, 본문의 수사적 구조는 분명하게 두 개의 어휘, '즐거워하라'와 '기억하라'로 요약된다. 이 명령형의 근거는 첫째, 초점의 이동을 표시하는 '바브'로 시작되어 이전 단위와 다른 주제로 이동하는 언어적 신호에 있다.¹⁹⁾ 둘째는 '헤벨'구문(11:8; 12:8)과 관계있다. 모든 것이 순간처럼 빨리 지나가고,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하는 '헤벨'의 의미와 함께 11:7-8의 주동사는 3인칭 미완료형의 '지시형'(11:8, jussive, $\text{יִזְכֹּר} \text{ חָסֵד}$)²⁰⁾의 간접명령에서 11:9-10의 '즐거워하라'(פִּגְחֵה)와 12:1-8의 '기억하라'(זָכֵר)의 직접 명령형으로 전환한다. 그러므로 명령형의 전환 사이에서 11:7-8의 간접명령(지시형)은 두 개의 직접명령형의 서론 기능을 한다. 다음 도표²¹⁾가 이러한 구성력을 드러내준다. <표 3>

11:7-8	
11:7	빛의 달콤함과 해를 보는 행복
11:8	'즐거워해야한다, 그러나 기억해야한다' [간접 명령]
	이유: '헤벨'(8절)
11:9-10	즐거워하라 [직접 명령]
	이유: '헤벨'(10절)
12:1-8	기억하라 [직접 명령]
	이유: '헤벨'(8절)

<표 3>

위에서 보는 것처럼 명령어의 사용이 이 시의 단위를 결정하는 주된

19) Roland E. Murphy, *Ecclesiastes*, WBC (Waco: Word Books, 1992), 112. 접속사 "바브"는 종종 강조 불변화사로 활용되어 새로운 주제나 구문을 시작하는 신호가 된다.
 20) "즐거워해야한다"와 "기억해야한다"로 번역한 3인칭 미완료형은 많은 경우 의지적인 뉘앙스를 표현한다. Paul Jouon and T. Muraoka, 『주요-무라오카 성서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132(§40b)을 보라. 그런 점에서 옥든(G. Ogden)의 번역처럼 "...let him rejoice in them all; but remember that the days of darkness will be many."으로 읽게 된다.
 21) 이 구성은 Graham Ogden and Lynell Zogbo, *A Handbook on the Ecclesiast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y, 1997), 406에서 제시한 것에 설명을 덧붙였다.

열쇳말로 작동하지만, '너의 창조자'(12:1)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원인자로서, 그리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자로서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제 코헬렛의 언어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기존 번역을 다시 생각하며, 본문의 문자적 의미와 맥락을 살려서 있는 그대로 따라 읽어 갈 것이다.

2. 본문 읽기(11:7-12:8)

2.1 즐거워해야한다 그러나 기억해야한다(11:7-8)

7-8절을 묶어주는 열쇳말은 빛과 어두움, 즐거움과 기억, 그리고 '날(נֶלֶם)'의 반복에 있다. 이 '날'은 생명의 활력과 빛을 말하는 '날(2회)과 죽음을 말하는 어둠의 '날(2회)이다. 이 표현은 어휘의 양극성을 끊임없이 즐기는 코헬렛의 언어습관을 그대로 반영한다. 때문에 그에게 빛과 어둠의 날은 공평하다. 빛을 어둠보다 강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잠을 '달콤하다(פִּינָה, 5:12) 말한 것처럼 빛(אִנְיָ) 역시 달콤하다(פִּינָה, 개역개정: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 빛은 둘째 콜론, "해를 보는 것은 눈에 즐겁다"²²⁾는 말과 평행관계다. 보통 빛은 삶의 은유적 표현이다. 즉, 코헬렛에게 빛과 해를 보는 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살아있음의 표현이다. 때문에 코헬렛에게 낙태된 자는 해를 보지 못한 자(6:4-5)이고, 지혜가 유산처럼 좋듯, 해를 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7:11). 그는

22) '즐겁다'로 읽은 '토브'는 전도서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관용어구다. טוב וחסד (즐거워하다)와 טוב יותר (...보다 좋은 것은 없다)가 대표적이다. '라아 토브'는 주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문맥에서 사용되고, '엔 토브' 구문 역시 비교 문맥에서 주로 즐거움을 요청하는 곳에서 표현된다. 코헬렛의 '토브'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Doug Ingram, *Ambiguity in Ecclesiastes* (London: T&T Clark, 2006), 169-249를 참조하라.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살아있음의 유익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8절에서 살았음에 대한 조심스러운 성찰을 이어간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사람이 많은 날들을 산다면 그는 즐거워해야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어둠의 날이 많을 것이라는 것과 다가올 모든 것들은 덧없다는 것을.” 8절은 ‘키’(כִּי)절을 중심으로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었다. “그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간접명령(지시형)의 ‘즐거워해야한다’와 그러나 ‘기억해야한다’의 권고 역시 교차적으로 구성되었다.



8절은 7절의 빛과 반대되는 ‘어둠의 날’(יְמֵי הַחֹשֶׁךְ, 개역개정, “깜깜한 날”)로 화제를 전환한다. 주제 전환을 ‘키’(כִּי)의 사용으로 언어학적인 표시를 남기지만, 보다 주목할 것은 어둠의 날을 말하기 전에 후렴구처럼 전도서 저변으로 ‘헤벨과 함께 병행되었던 ‘즐거움’을 초청하는 코헬렛의 권고들(*carpe diem* 구문들, 2:24-26; 3:12-13, 22; 5:17-19; 7:14; 8:15; 9:7-10) 중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조언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기억하라”²³⁾는 “즐거워하라”와 대칭적 위치에 있다. 코헬렛이 말하는 기억은 과거를 추억하고 반추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대한 각성을 요청하는 의미다. 그 각성은 즐거워하지만,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를 어둠의 날을 생각하

23) ‘기억하라’는 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어휘다. 이 동사는 단지 2회(5:19과 11:9), 명사형으로 2회(1:11) 사용되었을 뿐이다. 여기서 ‘기억’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옥든(G. Ogden)의 설명대로, 뒤 이어지는 이유절에 근거해서 ‘미래를 깊이 생각하라,’ ‘명심하라,’ ‘잊지 말라,’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Ogden and Zogbo, *Ecclesiastes*, 410).

라는 당부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의 현재성을 강조한 말이다. 곧이어 코헬렛은 보다 구체적으로 '불행한 날'(יְמֵי הָרָעָה)이 이르기 전에(12:1), 마지막 죽음이 이르기 전에(12:7),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12:1)는 직접 명령형으로 전환한다. 결국 8절의 '어둠의 날은 죽음과 이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즐거움 사이의 긴장인 셈이다.

2.2 즐거워하라(11:9-10)

간접명령의 지시형 '즐거워해야한다'(8절, אֲשֶׁר)는 2인칭의 직접명령형 '즐거워하라(אֲשֶׁר)로 전환한다. 이 전환은 삶의 즐거움을 요청하는 보다 긴박한 촉구로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무분별함과 모든 충동을 보증하는 권고는 아니다. '그러나 어둠의 날을 기억해야 한다(8절c)는 9절의 '즐거워하라...그러나 알라(אֲשֶׁר)로 마무리 된다. '즐거워하라 젊은이여, 너의 청년 시절을'이라는 명령을 시작으로 10절까지 반복되는 명령형 동사(기쁘게 하라, 걸어라, 알라, 떨쳐버려라, 날려버려라)에서 코헬렛이 목표하는 대상은 '젊은이'(צָעִיר)다. 완전히 성장해서 혈기왕성한 '노년의 상태(또는 시기)와 대조되는²⁴⁾ 젊은이다. 이 젊은이가 즐거워할 시절은 다름 아닌 '너의 청년시절(개역개정, '네 어린 때를', בְּחַוְוֹתָי, בְּיָמֵי בְּחַוְוֹתָי)이다. 오직 전도서에서만 발견되는 이 어휘는 성인기 초반의 나이다.²⁵⁾ 혈기왕성한 젊은이에게 코헬렛은 말한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알아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재판에(בְּמִשְׁפָּטַי) 데려오신다는 것을.'"(9절cdef) '즐거움'과 '재판(개역개정, '심판)으로의 부르심이 병행된다. 마치 '헤빨'과 '기쁨'을 병행시킨 것처럼,

24) Paul Jou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II* (subsidia biblica.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3), §136h; Paul Jouon and T. Muraoka, 『주용-무라오가 성서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552.

25) C. L. Seow, *Ecclesiastes, AB* (New York: Doubleday, 1997), 349.

코헬렛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양극 요소를 조화시키는 그만의 독특성을 다시 발휘한다. 심판, 재판, 정의를 뜻하는 ‘미슈파트’(משפט)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계의 재판장으로 활동하실 것을 표현하는 어휘다.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법칙의 개념이 담긴 말이다.²⁶⁾ 무엇보다 신중하게 읽어야 하는 것은 이 ‘심판’이 첫째 연의 ‘어둠의 날’과 연계되고, ‘헤벨’의 이유절과 동일하게 병행된다는 점이다.

11:7	해를 보는 즐거움	A
8	모든 것을 즐겨야 한다	B
	그러나 어둠의 날을 기억해야 한다	
	이유: 헤벨	
11:9	청춘의 시절을 즐겨라	A'
10	그러나 알라-심판으로의 부름	B'
	마음의 슬픔과 몸의 고통을 날려버려라	
	이유: 헤벨	C'

이 문맥에서, ‘어둠의 날들’과 ‘심판’은 즐거움 사이에 신중하게 놓여 안전한 경계를 만든다. 이 둘은 셋째 연에 이르러 ‘불행한 날들’(12:1)과 예언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소멸되는 어둠의 ‘그 날’에(12:3)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이 두 연에서 저자는 예외 없이 ‘헤벨’을 이유로 들어 삶의 일시성과 무상성을 밝혀준다. 젊음과 젊음의 험기조차도 순간(헤벨)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이처럼 삶을 즐거워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향락이 아니라 어둠의 날과 심판이 공존하는 엄정성이 있다. 코헬렛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때를 정해주시고, 그 시간의 경계 안에 진지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했던 것처럼 (3:1-14), 누구든 젊음이 지속되길 원하겠지만 순간이며, 심판과 어둠의 날이 홀연히 올 것을 노래한 것이다.

26) TWOT, 2443c.

2.3.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12:1-8)

전도서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어휘와 구문의 모호성을 풀어줄 열셋말은 반복어휘들이다.²⁷⁾ 그러나 전도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많은 논의들을 불러온 이 부분만큼은 전도서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들로 가득하다.²⁸⁾ 때문에 프레드릭스(D. Fredericks)는, 이 부분을 전도서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의 하나로 보았다.²⁹⁾ 특히 2-5절은 일련의 은유들로 넘쳐난다. 그야말로 모호성의 극치다. 때문에 이 은유들은 용어 하나하나에 풍유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며 노년을 예고하는 징후로, 또는 노화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자각으로 해석되어 왔던 부분이다. 이후로는 장례식 장면이나 퇴락한 집의 묘사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데이비스는 죽음의 은유로 해석하고, 죽음을 육체적인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존재의 시작으로까지 해석하기도 했다.³⁰⁾ 그러나 전도서 구문과 어휘의 모호성을 고려하고, 다른 구약본문

27) 반복되는 어휘들은 ‘아싸’(행하다, 62회), ‘하감’(지혜로운, 51회), ‘토브’(좋은, 즐거운, 51회), ‘라아’(보다, 46회), ‘에트’(때, 37회), ‘세메쉬’(해, 33회), ‘아말’(수고, 33회), ‘라아’(악, 30회), ‘헤벨’(무상함, 헛됨, 29회), ‘케셀’(어리석은, 18회), ‘셈하’(기쁨, 17회), ‘아칼’(먹다, 15회), ‘예쉬’(있다, 15회), ‘야타르’(유익, 이익, 15회), ‘싸칼’(어리석음, 13회), ‘루아흐’(바람, 호흡, 13회), ‘무트’(죽다, 13회), ‘레샤’(악행, 12회), ‘차디크’(의로움, 11회), ‘아나’(고통, 10회), ‘리우트 라온’(뒤쫓다, 10회), ‘셀레트’(지배, 9회), ‘자카르’(기억하다, 8회), ‘헬레크’(몹, 8회), ‘카아쓰’(분노, 7회), ‘헤페츠’(일, 7회), ‘할랄’(어리석음, 7회), ‘카웨르’(성공하다, 5회) 등이다. 반복 어휘들은 전도서 본문의 난해성을 풀어가는 열셋말 기능을 한다. 이것들 외에도 반복되는 구문들은 전도서의 구성력을 높인다.

28) 전도서에만 발견되는 27개의 hapax legomena와 42개의 아람어 영향을 받은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어휘자체의 모호성과 구문이해의 어려움을 증폭시킨다. James Crenshaw, *Ecclesiastes* (London: SCM Press, 1988), 31-32를 참조하라.

29) Daniel C. Fredericks, "Life Storms and Structural Unity in Qoheleth 11:1-12:8." *JOT* (1991), 95-114.

30) Davis, "Ecclesiastes 12:1-8," 302. 노년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선호도가 높지만, 오히려 초기 기독교나 중세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끝을 묘사하는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해했다(Seow, "Qoheleth's Eschatological Poem," 209-210).

들에서의 용례들과 본문의 독특한 구문의 구성을 따라("...전에"로 구분되는 단위 1절, 2-5절, 6-7절) 문자적인 의미들을 신중히 읽으면 뜻은 달라진다.

1절은 개인의 죽음에 접근하는 인상을 주지만, 2-6절의 언어는 '주님의 날을 연상시키는 구약 예언자들의 언어와 비슷한 종말론적 심판의 광경 중 하나처럼 보인다. 코헬렛은 개인의 죽음을 인류의 죽음과 창조 세계의 전체 운명과 연결시킨다.³¹⁾ 물론 구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신약에서 완전하게 계시되는 넓은 의미의 종말론적 희망과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 종말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더욱이 세계와 인류 역사의 종말 교리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³²⁾ 잠언, 욥기, 전도서와 같은 지혜문헌은 급진적인 역사적 심판이나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미래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지 않는다.³³⁾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질 필요는 있지만, 예언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 달, 별빛이 어두워지는 전형적인 종말론적 언어(예를 들어, 사5:30; 13:10; 24:23; 겔32:7-8; 욥2:2 등) 사용을 간과할 수는 없다. 코헬렛이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않았지만 글을 쓰는 문인이고, 선생이며, 지혜자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면(참조. 12:9-14), 예언자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빌려 사용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31) Bartholomew, *Ecclesiastes*, 358.

32) 린드블롬 (J. Lindblom)은 "종말론이 만일 세계와 인류 역사의 종말 교리라고 한다면, 구약 예언서에 종말론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구약 종말론의 광범위한 정의, 즉 이 세계의 질서는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의 예언들로서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Johannes Lindblom, *Prophec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62), 360-375를 보라.

33) David A. Peterson, "Eschatology," *ABD* 2, 576-579. Peterson은 구약의 종말론의 이슈와 전승적(족장 언약 전승, 다윗-시온 전승, 시내산 언약 전승) 또는 역사적 발전단계를 정리해 주고 있지만, 그는 역사적인 발전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인 정황에서 볼 때 느헤미야와 역대기의 견해들은, 페르시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존재 양식이 비종말론적인 방식으로 인식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종말론은 전 이스라엘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2.3.1 불행한 날이 오기 전에(1절)

“그리고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이라고 시작하는 시행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분사형 ‘창조자’(보레)³⁴⁾라는 매우 유별난 단어를 사용해 비슷한 음가를 가진 ‘무덤’(보르)을 떠올린다.³⁵⁾ 언어유희를 사용해 창조와 함께 죽음을 연상시키려는 의도성이 보인다. ‘불행한 날’(חַדְוָהּ וְיָמֵי, 개역개정,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조언으로 멀리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가깝게 끌어들이신다. 그리고 코헬렛은 불행한 날을 단지 노년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7:14; 잠16:4; 시 27:5; 41:2). 인생의 모든 곤경과 비참함, 재난과 삶의 최후와 관계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닥칠 ‘불행’(חַדְוָהּ)³⁶⁾의 문제와 관련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곤고한 날들로 인해 아무 ‘기쁨’(שִׂמְחָה)도 없다고 말할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불행의 날은 모든 것의 종말이다. 단지 개인과 인류의 운명만이 아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단힘이고,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의 종말이다. 그리고 이 불행의 날은 이후의 시행에서 해, 달, 별들이 빛을 잃는 어둠의 날로 연결된다(12:2). 창조는 인간 존재의 배경이지만, 불행한 날을 상기시켜 낙관적인 전망을 붙들지 않고(창3:16; 4:1), 삶과 죽음의 관계를 제시한다. 코헬렛

34) 구약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표현한 곳은 여기와 이사야서에서 모두 13회 사용된다(사 40:28; 42:5; 43:1, 15; 45:7[×2]; 57:9; 65:17, 18[×2]). 우리는 여기서 창조와 지혜 사이의 관계성만이 아니라 예언과의 관계성을 찾을 수 있다.

35) Thomas Krüger, *Coheloth*, O. C. Dean Jr., tr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4), 197. 욥기 32:22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를 분사형 ‘나를 지으신 자’(שִׂמְחָה) 하나님(개역개정,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성립시킨다.

36) 전도서에서 ‘불행’을 표현한 ‘라’는 반복어휘들 중 하나이며, 모두 21회 사용된다(1:13; 2:17; 4:8, 17; 5:12, 13, 15; 6:1, 2; 7:14; 8:3, 5, 11, 12; 9:3, 12; 19:5, 13; 11:2, 10; 12:14).

은 끝까지 즐거움을 추천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붙든다.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것의 생명(시작)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종말)의 근원적 관계를 직시하는 것이다.

2.3.2 종말이 이르기 전에(12:2-5)

코헬렛은 이전 시행에서 노래한 인간, 인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 보다 우주적인 차원의 일을 묘사한다.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2절) 창조자를 기억하라(2:1) 요청한다.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은, 우주적인 빛의 소멸이 일어나기 전이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선호되는 젊음과 노년의 생리적 변화하는 알레고리는 미드라쉬, 탈무드의 내용과 탈굴의 표현에 근거한 것이다. 해는 네 얼굴의 환한 모습, 빛은 네 눈의 빛, 달은 네 뺨의 장식, 별은 네 얼굴의 붉은 반점, 비는 포도주, 구름은 눈꺼풀로 이해한다.³⁷⁾ 또는 불쾌한 계절의 묘사로 읽어 늙은이는 곧 불쾌한 시절이라는 것으로 연결 짓는다.³⁸⁾ 이것들이 수용되는 이유는 3절의 신체적인 알레고리적 연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는 해와 빛, 달과 별은 빛을 창조하고, 낮과 밤을 나누던 창조의 시간으로 데려간다(창 1:14, 16). 이것은 반복적인 태양의 움직임이(1:5) 멈추고 어두워지는 광경이다. 코헬렛이 35회나 반복 사용했던 ‘해’와 ‘빛’이 운동을 멈춘다(1:5).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 비슷하게 빛이 어둡으로 바뀌는 광경을 예고한다(렘 13:16). 이사야 13:10과 요엘2:10에서 여호와의 날은 해, 달, 별들이 어두

37) C. F 카일, F. 델리취, 『전도서, 아가』, 송종섭 역 (서울: 시온성, 2000), 299-301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8) H 링그렌, W. 침멀리, 『잠언.전도서』,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84.

위지는 것과 함께 도래한다.³⁹⁾ 아모스 예언자 역시 정의와 공의 없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며, 여호와의 날을 빛 없는 캄캄한 밤으로 묘사한 것처럼(암 5:18), 예언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종말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날은 시아우(C. L. Seow)의 설명대로 '그 날에'(בַּיּוֹם אֵלֶּה)는 말라기 3:21(개역개정, 4:3)의 '바욘 아셰르'(בַּיּוֹם אֵשֶׁר)처럼 크고 두려운 날(말3:23; 개역개정, 4:5)에 대한 언급이며, 갑작스러운 어떤 날이다.⁴⁰⁾ 예언자들에게 그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어두워지는 두려움의 날이다(욘2:31; 3:15).

'그 날에'(בַּיּוֹם אֵלֶּה, 개역개정, '그런 날에는)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그 날에, 3절에서 '집을 지키는 남자들'(שְׂמֹרֵי הַבַּיִת)이 떨며, '힘 있는 남자들'(אֲנָשֵׁי הַחֵיל)은 구부러지고, '맷돌 가는 여인들'(הַטְּהוֹנוֹת)이 멈추는데, 그 일거리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창문으로 '바라보는 여인들'(הַרְאוֹת)은 어두워진다(3절). 이처럼 문자 그대로 읽을 때, 의미 전달의 모호성을 피할 수 없지만, 이것을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나 늙음의 적막함이라 던지 빛들이 어두워지는 것을 시력 저하나 기쁨과 환희의 상실과 같은 단순히 늙어감이나 죽음의 과정의 묘사로 읽는 것은 시행을 지배하는 '...전에' 구문구조의 맥락을 벗어난다.

종래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틀에서는 3-4절의 집과 거기 거주하는 자들과 평행되는 4개의 명사들, 즉 '집지키는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 '맷돌 가는 여인들,' '창문으로 바라보는 여인들'을 사람의 신체기관과 연결하여 집을 인간의 몸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었다. 집 지키는 남자들=팔, 힘 있는 남자들=다리, 맷돌 가는 여인들=치아,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인들=눈으로 대치시켰다.⁴¹⁾ 이러한 대입은 자연스럽게 노년의 신체

39) Krüger, *Qoheleth*, 202.

40) C. L. Seow, "Qoheleth's Eschatological Poem," 214. '욘'은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 본문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주 나타나며, 린드블롬은 '야웨의 날, '그 날은 포로후기 예언적 종말을 위한 전문용어로 설명한다(Lindblom, *Prophecy in Israel*, 420).

41) Murphy, *Ecclesiastes*, 118. 이러한 읽기는 탈무드, 미드라쉬에 이어 탈굴의 영향

부위 쇠퇴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것이 새번역과 공동번역이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
<p>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12:3)</p>	<p>그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던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12:3)</p>	<p>그날이 오면 두 팔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수문장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가 굽은 군인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가 굽은 군인 같이 되고, 이는 멧돌 가는 여인처럼 빠지고, 눈은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는 여인들같이 흐려지리라(12:3)</p>

3절의 첫 단어 ‘그 날에는’ 3-5절을 지배하면서 2절 전체를 통합하고, 3절의 ‘집’의 표상으로 이어져 5절에서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공통의 표상으로 마무리된다.⁴²⁾ 구약에서 ‘힘 있는 남자들은’ 능력을 표현하거나(창 47:6; 출 18:21, 25; 삼상 31:12; 왕상 1:42; 대하 26:8; 사 5:22), 용맹스러움이나 용기(삿 3:29; 삼상 14:52; 18:17), 군인들(삿20:44, 46; 삼하 11:16; 23:20; 렘 48:14), 또는 지주 계급이나 상류층의 부유한 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지혜문학에서 ‘힘’은 물질적인 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관계된다(욥 15:9; 20:15, 18; 잠 13:22, 시 49:7, 11:73, 12).⁴³⁾ 그런 점에서 이 광경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하는 ‘그 날(단수 명사형)’이며, 신약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마지막 때 장면 묘사와 비슷하다(마 24:40-51).⁴⁴⁾

때문인데, 이러한 읽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카일·텔리취, 『전도서, 아가』, 302-320; 발터 침멀리, 『잠언·전도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85-86을 참고하라.

42) Milton P Horne, *Proverbs-Ecclesiaste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12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3), 534.

43) John F. A. Sawyer, “The Ruined House in Ecclesiastes 12: A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Parable,” *JBL* 94 (1975), 525.

44) Seow, “Qohelet’s Eschatological Poem,” 217. 신약에서 멧돌 가는 여인의 묘사는

곧이어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뿔소리가 찾아들고, 새의 소리는 높아지고,⁴⁵⁾ 모든 딸들의 노래는 낮아진다(4절). 코헬렛은 집 밖의 공공의 장소로 이동한다.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 사람들의 사업과 잡담, 종교적 행위, 장례식을 위해 모여드는 거리의 문들은 '성문'(잠 1:21)과 비교되기 때문에⁴⁶⁾ 이 모든 활동이 멈추었음을 뜻한다. 뿔소리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 소리마저 찾아들어 일상의 소란과 노래(רִנָּה)를 통해 들리는 기쁨이 잠들어 가는 곳에(참조 렘 25:10-11) 새들의 높아진 소리는 인간의 황폐한 거주지에 대한 불길한 징조이며(참조 슥 2:14), 일상의 삶이 그친 황폐해진 거리의 풍경묘사다.

이어지는 5절의 묘사를 읽어보면, 더구나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길에는 공포가 있고, 아몬드나무는 '혐오스러워지고',⁴⁷⁾ 메뚜기는 발을 질질 끌며, 가시백화채나무는 쪼개지고, 사람은 그의 영원한 집으로 가니, 거리에는 통곡하는 자들이 돌아다닌다(5절). 보통 노년의 비애로 묘사되는데, 두 개의 식물 '아몬드나무'(개역개정, 살구나무), 가시백화채나무(개역개정, '정옥') 사이에 곤충 '메뚜기' 묘사는 식물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다. 황폐의 상징 메뚜기는 날쌔 움직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비유 중 하나지만(눅17:36),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는 인자의 오심과 관련된 여러 비유 말씀들 가운데 위치했다.

45) "새의 소리가 높아질 것이라"(בְּקוֹל צִוְיוֹת הַעֲוֹף)로 읽는 이 구문을 개역개정과 NRSV(and one rises up at the sound of a bird)는 동사의 주어를 불특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개역개정)로 번역하고 있다. 집합 명사로서 "새의 소리"(레콜 하지포르)의 전치사 '레'의 라메드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주어 기능을 한다(후대히브리어). 이와 같은 용례는 전 9:4; 겔 44:9; 대상 7:21; 스 1:5에서 발견된다. GKC §143e; Joüon-Muraoka, §125.1을 보라.

46) Seow, "Qohelet's Eschatological Poem," 217.

47) 고대 역본들(칠십인역, 시리아역, 벌게이트)과 현대 주석가들 대부분은 어근 동사를 צָרַח(꽃이 피다)로 생각하여 ve-yiqtol형(צָרַח)으로 고쳐 읽는다. 필사자의 오류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현대에도 수용되어, 본문의 נָח을 첨가된 형태(נָחַח)가 거부된다. 이 둘은 동음이의어 관계로서, 케티브의 원형(נָח)의 뜻은 '혐오하다'로서 전혀 다른 뜻이다. 필자는 케티브를 수용하여 읽었으며, 이 첨가된 נָח는 수사적 의도에 따라 강조의 목적을 둔 '강조의 알레프'(TWOT, 1274b)로 설명되기도 한다.

사라진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사용된 ‘가시백화채나무’(קַשְׁיָבַחַתְנָח)는 쪼개진다(개역개정, ‘정욕이 그치리니). 이 나무는 식욕과 성욕을 자극하는 식물로 알려졌다.⁴⁸⁾ 때문에 후대의 유대문학이 아몬드 나무의 흰색의 꽃은 노년의 백발을 뜻하는 것으로, 힘없는 메뚜기의 움직임은 노년의 힘듦과 고통스러운 모습의 노골적인 연결을 시도했다.⁴⁹⁾ 이러한 영향은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새번역)라는 번역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읽기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을 죽음을 향해 가는 노년의 절정으로 읽게 만든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
길거리 문들이 닫혀 질 것이며 맷돌소리가 적어 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 어날 것이며 음약하는 여자들 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12:4)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 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 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 지 않을 것이다(12:4).	거리 쪽으로 난 문이 닫히듯 귀는 멀어 방아소리 멀어져 가고 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 게 되리라(12:4)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 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정욕이 그치 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 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 이라(12:5)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 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 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 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12:5)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 이 두려워지고 길에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파뿌리가 되고 양기가 떨어 져 보약도 소용없이 되리라. 그러다가 영원한 집에 돌아 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 져 나와 애곡하리라.(12:5)

그러나 4-5절의 전체적인 집 밖 거리의 풍경은 황폐해져가는 음산함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 이 음산한 묘시는 자연 질서의 붕괴, 인간의 죽음과 거리의 통곡하는 자들의 음울한 그림은 예언자들의 종말론적인

48) BDB, 3; Murphy, *Ecclesiastes*, 113; Tremper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272.

49) Longman, *The Book of Ecclesiastes*, 272.

상징들과 비슷하다. 코헬렛은 예언서에서 발견되는 애도의 풍습, 의인화된 도시와 땅(성문이 슬퍼하며, 애곡하고, 땅이 애곡하는), 세상의 표상들을 관용구로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율 1:13-14; 암 8:10; 사 24:4; 사 3:26; 렘 4:28).⁵⁰⁾ 이와 같은 황폐한 광경의 묘사는 노년의 알레고리를 넘어선다.

코헬렛의 말대로 인류는 “영원한 집”, 무덤으로 간다(5절). 저 세상의 집으로 간다. “영원”은 보통 시간적 개념이지만, “집”과 만나면서 공간적 개념과 합치된다.⁵¹⁾ 그런데 3절에서의 “집”은 지상에 사는 동안 인간이 거주하는 집이지만,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시와 대칭적으로 마주보는 첫 부분 1:4-11의 “한 세대가 간다”고 노래했을 때, 그곳이 영원한 집이라고 대답해주는 것처럼 들린다. 모두 한 곳으로 가고, 먼지로 가고(3:20), 나온 곳으로 가고(5:15), 죽은 자들에게(9:3) 간다.

코헬렛은 일정한 구조를 지닌 공간에서 수립된 창조질서가 깨지는 죽음과 종말의 순간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코헬렛이 우주 창조질서 안에서 반복되는 인간과 세계의 질서를 관찰했던 것처럼(1:4-11), 죽음을 향한 인간과 종말의 우주 질서를 바라본 셈이다. 코헬렛에게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음을 맞이하며(2:15-16), 사람과 짐승 역시 죽음 앞에 동등하듯(3:18-20)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죽음들은 앞으로의 종말론적 죽음과 분리되지 않는 종말의 맛보기 과정인 것이다. 창조와 대비되는 종말의 상황 묘사는 개별적인 인간에게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닥치는 불행의 때와 마지막

50) Fox, “Aging and Death in Qoheleth 12,” 393.

51) “영원한 집으로 간다”에서 동사의 표현은 죽음을 말하는 완곡어법이다. ‘간다’는 말은 “모두가 한 곳으로 가고... 먼지로 간다”(3:20) 나온 곳으로 가고(5:15), 죽은 자들에게로 간다(9:3)는 말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환진은 “히브리어 올람, 그 시간과 공간,” 「헤르메니아 투데이」 21 (2003), 55-72에서 “올람”을 시간 개념으로만 읽을 때 “올람”의 정확한 의미 발견이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북방 셈어 새김글을 인용하면서, 공간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종말은 인간의 통제 너머에 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코헬렛은 해 아래서 마지막 시간이 이르기 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답하며 성찰했다.

2.3.3 창조자에게 돌아가기 전에(12:6-8)

이 부분은 1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조언에 종속된 “...전에” 구문의 마지막 단위로서 두드러진 심상은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와 깨진 우물이다. 은줄은 끊어지고, 금 그릇은 깨지고 샘의 물동이는 부서지고, 우물의 도르레도 깨진다(6절). 먼지는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고,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7절). 은줄과 연결된 등잔대는 생명과 빛의 상징이다. 이것의 파괴가 가져오는 심상은 죽음이다. 우주적인 빛의 소멸(12:2), 집안과 밖의 황폐한 그림을 지나(12:3-5) 코헬렛은 일상의 빛의 소멸이 일어나는 광경을 묘사한다.

샘에서 물동이가 깨지는 것은 삶의 종말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죽을 운명의 존재가 신적 도공에 의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참조. 사 29:16; 64:8; 렘 18:6; 창 2:4-7), 죽음이 그릇 깨지는 것과 연결된다(렘 22:28).⁵²⁾ 그리고 “우물”(하보르)은 살아있는 물의 근원이지만(창 26:19), 무덤으로도 표현된다(사 14:19; 잠 28:17; 시 30:4).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너의 창조자”(12:1, 보레카)를 떠올리게 한다.⁵³⁾ 결국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은 비슷한 음가의 너의 죽음, 또는 너의 무덤을 생각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코헬렛은 삶과 죽음, 그리고 시작과 끝을 언어의 이중성을 사용해 성찰하고 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먼지”(עָפָר)가 땅위로 되돌아가고, “호흡”(רוּחַ) 즉, 생명(life-breath)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7절) 인류의

52) Seow, *Ecclesiastes*, 366-37; Idem, “Qohelet’s Eschatological Poem,” 232.

53) H.A.J. Krüger, “Old Age Frailty Versus Cosmic Destruction?,” A Schoors *Qohelet*, ed., in *the Context of Wisdom*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8), 409.

본질이다. 가고 오는 세대의 지속적인 걸음은(1:4) 결국 원래 호흡(חַי)을 주셨던 분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은 곧 땅의 먼지로의 회귀다. 이것은 모든 반복적인 운동의 종결을 선언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창 2:7) 이제 “땅의 먼지로 돌아가는”(창 3:19) 창조 때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다.

코헬렛은 전도서 곳곳에서 하늘 아래 사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면서 사후에 대한 어떤 관점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며 지상의 마지막에 대해 즉 죽음과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코헬렛은 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반복적인 질서 때문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음을(1:9) 노래했지만, 글을 마무리하면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기억까지도(1:10-12)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날을 노래한 것이다. 바돌로뮤(C. Bartholomew)의 말대로, 코헬렛은 인간의 개별적인 죽음을 말하지만, 2-6절의 주님의 날에 대한 종말론적 환상에 개인적인 죽음을 연결하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에 대한 예언자적인 환상을 환기시켰다.⁵⁴⁾ 코헬렛이 예언자들처럼 강렬한 종말론적 환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사후 세계의 어떤 관점도 말하지 않았지만,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만이 아니라 축복이라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가 끈질기게 삶과 죽음 중 어느 하나를 우위에 두지 않았던 태도(3:2; 4:2-3; 7:1-4)가 여기서 밝혀진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해벨(12:8)은 염세적인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덧없음을 상기시켜 창조자를 더 깊이 생각 하도록 인도한다. 삶의 부정성을 피하지 않고, 비판적인 세상을 촌촌하게 들여다볼지언정 세상을 혐오하는 염세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눈의 현실주의자였고, 하늘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덧없는 “하늘 아래”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다. 그는 삶과 죽음이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마지막 ‘해벨구절(12:8)

54) Craig G. Bartholomew,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353.

을 통해 다시 한 번 들려준다. 뿐만 아니라 12:9-14의 끝맺음말 역시 하나님이 착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판단하시기 때문에(12:14; 참조. 3:17; 11:9)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라(12:13), 조언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말을 마무리 짓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코헬렛의 말(1:1, קְהֵלֶת וְיָמֵי קָרָתָא)은 종말론적 심판의 관점이 고동치는 희망을 내다볼 수 있게 한다.

나가는 말: 덧없는 삶을 위한 종말론적 기쁨

코헬렛은 가장 모호한 단어, ‘헤벨’을 반복 사용하면서 세계의 반복 질서(1:4-11)의 종말(죽음)과 인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일시적 삶의 본질을 생각했다. 동시에 코헬렛에게 죽음은 만물과 인간의 피곤함(1:4-11) 종결시키는 것이며,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대조적인 관계성의 절정이다. 코헬렛은 인간에게 있는 불공평과 무지, 그리고 죽음의 장벽을 인식하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죽음의 승리를 내다보았다. 그는 “삶의 불공평과 죽음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삶(1절)과 죽음(7절) 둘 다의 창조자”⁵⁵⁾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단지 젊음과 노년의 대비나 노화의 과정(11:7-12:7)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태초의 시간을 기억하게 했다. 동시에 죽음이 있기에 즐거움은 지금 여기를 위한 명령이 된다. 그래서 죽음은 삶을 위한 추진력을 만들고 누구에게든 홀연히 찾아올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과 우주의 마지막 시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즐거움이다. 그런

55) Barry C. Davis, “Ecclesiastes 12:1-8-Death, Impetus Life,” Roy B. Zuck, ed., *Reflection with Solomon: Selected Studies on the Book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351.

점에서 마지막 '헤벨' 구문(12:8, הָבֵל הַבְּלִים אֲמַר הַקּוֹהֵלֶת הַבֵּל הַבֵּל)은 삶의 덧없음과 죽음의 공평을 노래한 코헬렛의 이중적 긴장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멋진 말이다. 코헬렛은 지금(오늘)이라는 순간을 특별하게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으며, 모든 것들에게 홀연히 찾아올 마지막 죽음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의 끝을 고하는 피조성의 현실에 대한 탐색이다. 코헬렛은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깊이 탐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는 상상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론적 성찰이 된 마지막의 시는 시대를 가로질러 "해 아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종말론적 일상을 즐거움으로 책임 있게 살아야 할 크리스천들을 위한 복음이다.

<주요어>

코헬렛, 종말, 창조, 알레고리, 즐거움, 기쁨, 전도서, 모호성, 헤벨

<Key words>

Qoheleth, eschaton, creation, allegory, joy, Ecclesiastes, ambiguity, hebel

* 접수일 2014년 8월 17일, 수정일 2014년 8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25일

참고문헌

-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Canon & Culture』 15 (2014), 31-49.
- 김순영, 『열셋말로 읽는 전도서』,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1.
- 양신혜, “칼뱅의 영적해석-문자적 의미와 알레고리적 해석의 긴장 사이에서,” 『장신논단』 38 (2010), 119-139.
- 엄진섭, “루터의 알레고리 비판,” 『신학과신앙』 14 (2003) 167-208.
- 유중호 외,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이환진, “히브리어 올람, 그 시간과 공간,” 『헤르메니아 투데이』 21 (2003), 55-72.
- 주옹, 폴, 무라오카, T., 『주옹-무라오카 성서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카일, C. F., 텔리취, F., 『전도서, 아가』, 송종섭 역, 서울: 시온성, 2000.
- 실바, 모세스, 『하나님 그리고 언어와 성경과의 관계』,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 1994.
- 링그렌, H., 침멜리, W., 『잠언·전도서』,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Bartholomew, Craig., G.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Craigie, Peter C., *The Old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Nashville: Abingdon, 1986.
- Crenshaw, James., *Ecclesiastes*, London: SCM Press, 1988.
- Davis, Barry C., “Ecclesiastes 2:1-8, Death, an Impetus for Life,” *Bibliotheca Sacra July-September* (1991), 298-318.
- Davis, Barry C., “Ecclesiastes 12:1-8-Death, Impetus Life,” Roy B. Zuck., ed., *Reflection with Solomon: Selected Studies on the Book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 Dell, Katharine J., “Ecclesiastes as Wisdom: Consulting Early Interpreters,” VT 44 (1944)

- Fox, Michael V., "Aging and Death in Qoheleth 12," *JSOT* 42 (1988), 55-77.
- Fox, Michael V., "Aging and Death in Qoheleth 12," Roy Zuck, ed., *Reflecting with Solomon: Selected Studies on the Book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381-399.
- Fox, Michael V.,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Grand Rapids: Eerdmans, 1999.
- Fredericks, Daniel C., "Life Storms and Structural Unity in Qoheleth 11:1-12:8." *JSOT* (1991), 95-114.
- Horne, Milton P., *Proverbs-Ecclesiaste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12,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3.
- Ingram, Doug., *Ambiguity in Ecclesiastes*, London: T&T Clark, 2006.
- Joüon, Paul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II*, subsidia biblica, Roma: Editrice Potificio Istituto Biblico, 1993.
- Krüger, H. A. J., "Old Age Frailty Versus Cosmic Deterioration?: A Few Remarks on the Interpretation of Qohelet 11,7-12,8" A. Schoors, ed., *Qohelet in the Context of Wisdom*, Leuven: Leuven University, 1998.
- Krüger, Thomas., *Qoheleth*, O. C. Dean Jr., tr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4.
- Krüger, H. A. J., "Old Age Frailty Versus Cosmic Destruction?," A Schoors, ed., *Qohelet in the Context of Wisdom*,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8.
- Lindblom, Johannes., *Prophec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62.
- Longman III, Tremper., *The Book of Ecclesiast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Muilenburg, James.,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 (1969), 1-18.
- Murphy, Roland. *Ecclesiastes*, WBC, Waco: Word Books, 1992.
- Ogden, Graham and Zogbo, Lynell., *A Handbook on the Ecclesiaste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y, 1997.
- Peterson, David A., "Eschatology," *ABD* 2, 576-579.
- Reitman, James., "The Structure and Unity of Ecclesiastes," *Bibliotheca Sacra* 154 (1997), 297-319.

Sawyer, John F. A., "The Ruined House in Ecclesiastes 12: A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Parable," *JBL* 94 (1975), 519-531.

Seow, C. L., *Ecclesiastes*, AB, New York: Doubleday, 1997.

Seow, C. L., "Qohelet's Eschatological Poem," *JBL* 118 (1999), 209-234.

<초록>

전 11:7-12:8의 모호성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재고

김순영

(백석대 신학대학원 강사)

전도서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들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주된 이유는 본문의 모호한 단어들과 구문들, 그리고 그 애매한 의미들을 통과하여 수수께끼처럼 풀어야하는 문제들 때문이며, 이것은 독자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도전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모호성은 일상의 대화나 과학적인 논의에서는 저자와 독자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되지만, 시의 세계와 언어에서는 시적인 장치와 문체적인 장치로서 용인된다. 특별히 3인칭으로 언급되는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은(전 1:1; 7:27; 12:8)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지혜와 어리석음, 사람과 미움 등등의 양극적인 의미나 구조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인 모호성을 즐긴다. 동시에 코헬렛의 주의 깊은 언어와 수사적 구조뿐만 아니라, '헤벨'구문(1:2; 12:8)은 본문의 표제(1:1)와 에필로그(12:9-14)와 함께 이중적인 외곽구조와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 이것은 전도서 전체를 통일성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읽도록 조직화한다. 이것과 함께 반복을 통한 창조질서를 노래하는 1:4-11의 시와 교차적인 상호 관계성을 맺는 11:7-12:7의 시는 삶의 종말론적 기쁨을 추천하는 노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2:1-7이 모호한 어휘들의 나열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치우쳐왔고, 자연스럽게 창조질서를 노래하는 두 편의 시의 관계성 안에서 읽는 것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1:4-11의 시에서 인간의 삶과 자연 세계의 반복적인 질서는 코헬렛의 글을 마무리하는 12:1-7의 종말

론적인 이미지와 함께 시의 절정을 이루면서 끝을 향한다. 모호한 어휘들이 일정 부분 노년의 생리적 변화처럼 해석되었지만, 코헬렛은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주님의 날을 상기시키는 “그 날에”(12:3)를 사용해 빛이 어두워지는 우주적인 변화와 재난, 소멸되는 일상을 묘사한다. 이처럼 코헬렛은 책의 가장 주된 모티프인 ‘헤벨’과 하나님의 선물인 즐거움의 주제와 더불어(2:24-26; 3:12-13, 22; 5:17-19; 8:15; 9:7-10; 11:7-12:1) 삶과 죽음을 우주적 차원과 일상의 차원에서 함께 노래했다.

<Abstract >

Ambiguity of Qoheleth 11:7-12:8 and Rethinking Allegorical Interpretation

Lecturer, Soon-Young Kim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The book of Qoheleth is well known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books in the Old Testament. It challenges the reader to solve its puzzling problem and interpret its mysterious meaning through its ambiguous words. Generally, ambiguity is considered as an obstacle to communication between an author and a reader in daily conversations and scientific discourses. poetic language, however, ambiguity is supported as a poetic device and stylistic techniques. Especially the author Qoheleth who is referred to in third person(1:1; 7:27; 12:8) enjoys his artful ambiguity through bipolar meaning or structures as life and death, joy and sorrow, wisdom and folly, love and hate, and so on. And Qoheleth’s careful use

of language and rhetorical structure, the ‘hebel’ phrase(1:2; 12:8) as a dual outer frame forms the poetic inclusio. It also makes it possible to organize the book as a whole book in its literary nature and in the purposes of the creation poems of 1:4-11 relative to 11:7-12:7.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bout 12:1-7 in an allegorical reading because of ambiguous words. Naturally, very little about the interaction of the two poetic units describing the creation order. The cycle of human life and the natural world in the opening, 1:4-11, ends in the climax of exchatological imagery of concluding poem, 12:1-7. Though some images suggest an allegory of old age, there is a definite suggestion of a disaster of cosmic magnitude using prophet’s language of the day of the LORD(especially 12:3, “in the day”, בְּיֹם הַיְהוָה). In this way, the writer Qoheleth shows the purpose of the book involves pervasive theme of ‘hebel’ balanced by joy as God’s basic gifts(2:24-26; 3:12-13, 22; 5:17-19; 8:15; 9:7-10; 11:7-12:1) as with the great motif of life and death.